

Ⅲ. 백제의 대외관계

1. 중국왕조와의 관계
2. 백제의 요서영유(설)
3. 왜와의 관계

Ⅲ. 백제의 대외관계

1. 중국왕조와의 관계

1) 대중관계의 시작

《三國史記》百濟本紀에 의하면 백제는 근초고왕 27년(372)에 중국의晋과 처음으로 대중관계를 맺고 있다. 즉 근초고왕 27년과 28년에 연이어 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사신 파견은 《晋書》簡文帝紀에서도 확인된다.

咸安 2년 춘정월 신축, 百濟·林邑王이 각각 사신을 보내 方物を 바쳤다.

咸安 2년 6월, 사신을 보내 百濟王 餘句를 배하여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하였다(《晋書》권 9, 本紀, 簡文帝).

위의 내용은 백제의 조공과 더불어 그 해 6월에는 근초고왕을 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봉책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백제와 진의 양국 사료에서 모두 공식적인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에 이루어진 백제의 조공과 진의 봉책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쌍방적인 외교행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의 대중관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도 百濟란 국명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句麗·百濟 및 宇文·段部の 사람들은 모두 兵勢에 의하여 옮겨온 것으로 한인들이 의를 사모하여 온 것과 다름니다. 그래서 모두 돌아갈 생각뿐입니다. 지금 그들의 수가 십만 호나 되어 도성이 비좁게 모여드니 장차 국가에 해가 될까 합니다(《晋書》권 109, 載記 9, 慕容皝).

위와 같이 《진서》 모용황전에는 백제의 존재가 이미 보이고 있는데, 이 때는 백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진과의 외교관계를 맺기 전이었다. 그러므로 이

곳의 백제를 만주지역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¹⁾ 그러나 3세기 말경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기록한 《三國志》에서는 烏丸·鮮卑·夫餘·高句麗·東沃沮·挹婁·濊·韓·辰韓·弁辰·倭人만이 기록되어 있고, 백제에 대해서는 따로 입전되어 있지 않다. 이로 보면 이전부터 만주지역에 실존하였던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한 일시적 존재로 해석된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樂浪·帶方이 313년경 요서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비롯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²⁾ 백제가 진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이전에 낙랑·대방의 요서 이동과 慕容氏의 세력 확장과정에서 백제란 국명이 중국 사료에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백제가 근초고왕대에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갖게 된 것은 백제국 성장의 결과였다. 백제의 성장과정은 무엇보다도 馬韓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듯하다. 百濟는 마한 54개국 가운데 하나인 伯濟國으로부터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마한은 백제의 온조왕대에 이미 멸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진서》에는 290년까지 수차에 걸친 마한의 진에 대한 조공기사가 전하여지고 있다.⁴⁾ 그러므로 《진서》에 나타나는 마한의 조공을 백제의 조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진서》마한전에 의하면 마한이 분명히 일관되게 조공하고 있다. 이를 국명을 달리하는 백제가 조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조공이란 그 특성상 쌍방이 상대를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때 조공한 것은 《진서》의 기록대로 마한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서》에 나타나는 마한은 어떠한 존재일까. 이는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온조왕대 백제에 의해 멸망되었다는 마한과는 다른 대상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백제본기의 마한은 초기 백제와 인접하였던 차령·금강 이북의 目支國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서 마한 54개국의 일부로 파악된다.⁶⁾ 그리고 《진서》에 290년까

1) 李道學, 〈百濟集權國家形成過程研究〉(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1), 48~51쪽.

2) 俞元載, 〈晉書의 馬韓과 百濟〉(《韓國上古史學報》17, 韓國上古史學會, 1994).

3) 《三國史記》권 97, 列傳 67, 馬韓.

4) 《晉書》권 97, 列傳 67, 馬韓.

5)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馬韓·百濟文化》10, 圓光大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7), 62쪽.

지 나타나는 마한은 초기의 백제에 멸망되지 않고 있던 나머지 마한세력으로 서 이들의 역사활동에 대한 기록이 바로 《진서》의 마한으로 판단된다.⁷⁾ 그러므로 《삼국사기》백제본기의 마한과 《진서》마한전의 마한을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⁸⁾ 실로 마한은 54개국으로 이루어졌던 정치구성체임을 이곳에서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일시에 멸망될 수 있을 만큼 응집력이 있던 하나의 세력이 아니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서》에서 이러한 마한의 역사활동이 사라지고 백제가 근초고왕 때 진과 공식적인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마한의 잔여세력을 백제가 어느 정도 극복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한의 잔여세력이 상존하고 있을 때는 이들에 의한 대중관계가 아직 계속되었으나, 백제가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이들 세력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백제국으로 발전하면서 백제라는 국명을 가지고 마한에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진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실로 근초고왕 26년에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으며, 동 21년과 23년에는 이미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었다. 그 후 근초고왕 27년에 이르러서는 진과 통교함으로써 동북아시아사의 일익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 대중관계의 전개

(1) 한성시대

백제가 한강유역의 한성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동북쪽에 위치했던 말갈,⁹⁾ 북쪽의 낙랑·대방, 그리고 남쪽의 마한세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문제였다. 이들 세력을 극복하고 한반도 서남부의 대표적 세력으로 대두하여 중국의 진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근초고왕대부터였다. 그 후 백제와 중국 사이에는 조공·봉책·견사·청구

6) 俞元載, 앞의 글.

盧重國,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百濟論叢》2,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72~74쪽.

7) 俞元載, 위의 글.

8) 俞元載, 위의 글.

9) 俞元載, 〈三國史記 僞靺鞨考〉(《史學研究》29, 韓國史學會, 1979).

및 허락·전쟁·회맹 등의 관계가 지속되었다. 중국은 그들 나름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지배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백제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백제와 중국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호관계로서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따라 각 시기

〈표 1〉

한성시대의 대중관계

번호	연 도	내 용	삼 국 사 기	중 국 사 서	
				기 년	서 명
1	372	조공(진)	근초고왕 27년	함안 2년	晉 書
2	372	봉책(진)		함안 2년	晉 書
3	373	조공(진)	근초고왕 28년		
4	379	조공(진)	근구수왕 5년		
5	384	조공(진)	침류왕 원년	태원 9년	晉 書
6	386	봉책(진)		태원 11년	晉 書
7	406	조공(진)	전지왕 2년		
8	416	봉책(진)	전지왕 12년	의희 12년	宋 書
9	420	봉책(송)		영초 1년	宋 書
10	424	조공(송)		경평 2년	宋 書
11	425	견사(송)		원가 2년	宋 書
12	429	조공(송)	비유왕 3년	원가 6년	宋 書
13	430	조공(송)	비유왕 4년	원가 7년	宋 書
14	430	봉책(송)	비유왕 4년	원가 7년	宋 書
15	440	조공(송)	비유왕 14년	원가 17년	宋 書
16	443	조공(송)		원가 20년	宋 書
17	450	조공(송)		원가 27년	宋 書
18	450	기타청구(송)		원가 27년	宋 書
19	450	허가(송)		원가 27년	宋 書
20	457	관작청구(송)		대명 1년	宋 書
21	457	봉책(송)		대명 1년	宋 書
22	458	관작청구(송)		대명 2년	宋 書
23	458	봉책(송)		대명 2년	宋 書
24	463	조공(송)		대명 7년	冊府元龜
25	467	조공(송)		태시 3년	宋 書
26	471	조공(송)		태시 7년	宋 書
27	472	기타청구(위)	개로왕 18년	연흥 2년	魏 書
28	?	견사(위)	개로왕 ?년	연흥 ?년	魏 書
29	475	견사(위)		연흥 5년	魏 書

마다 다른 변화상을 보인다. 이 변화상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중관계가 시작된 근초고왕 27년부터 고구려의 남침에 의하여 백제가 도움을 응진으로 천도했던 시기까지의 대중관계를 정리하면 앞의 〈표 1〉과 같다.

처음으로 대중관계를 갖게 된 진과는 모두 8회에 이르는 교류가 있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중관계의 내용은 조공과 봉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처음으로 근초고왕이 진에 조공하고 간문제가 근초고왕을 「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봉책한 이래, 이러한 조공과 봉책의 외교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처음으로 근초고왕에게 주어진 봉책명은 「진동장군영낙랑태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진이 조공을 시작한 백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즉 진은 백제에 대하여 이전의 왕조로부터 전통적인 관념인 낙랑의 범주 속에서 인식하였으며, 동시대적인 관념인 백제로 독립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¹⁰⁾ 그러나 그 뒤 餘暉와 餘映에 대한 봉책에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었다.¹¹⁾ 이처럼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조공과 봉책은 당시 중국의 남북조시대와 한반도의 삼국정립기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외교적 행위였던 것이다.

중국에서 진을 대신하여 송이 서게 되니 백제의 대중관계 또한 송과 이루어지게 되었고, 송은 진이 하던 대로 백제와의 관계를 지속시켰다. 즉 백제의 전지왕을 「鎮東將軍」에서 「鎮東大將軍」으로 봉책하여 진대의 외교관계를 계승하였다. 그 후 계속된 조공과 봉책의 관례적인 관계에서 백제의 비유왕은 송에 易林·式占·腰弩 등을 요청하였으며 송 태조는 이에 응했던 것이다.¹²⁾ 이는 조공과 봉책의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백제가 바라는 강렬한 문화적 욕구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으며, 당시 백제의 적극적인 대중관계의 일면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개로왕 이전의 봉책관계란 백제의 왕에게 국한된 형태였으나, 개로왕대에 이르게 되면 송에 사신을 보내어 신하들에게까지 관작을 요청하고 있다. 즉 餘紀 등 11인에 대한 관작 청구가 그것이다.¹³⁾

10) 俞元載, 〈中國正史의 百濟觀〉(《韓國古代史研究》6, 1992), 183~191쪽.

11) 俞元載, 위의 글, 183~186쪽.

12) 《宋書》권 97, 列傳 57, 百濟國傳, 元嘉 27년.

13) 《宋書》권 97, 列傳 57, 百濟國傳, 大明 2년.

이들 11인은 모두 왕의 측근들로 보이는데¹⁴⁾ 봉책관계를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요청하였다는 것은 바로 심화된 대중관계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백제의 대중관계는 진·송 등 남조와의 교류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개로왕대에 이르러 이러한 외교노선을 수정하여 북조인 魏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백제가 남조 일변도의 외교노선을 수정하여 북조인 북위와도 교류하려고 하였던 것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연유한다. 이 때 고구려는 장수왕대로서 그의 남하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백제는 이러한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북위와 연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개로왕 18년(472) 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 餘禮와 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 張茂 등을 북위에 보내어 고구려의 잘못을 열거하고 군대를 청하였으나¹⁵⁾ 북위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백제와 북위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도읍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임으로써 백제의 한성시대는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475).

(2) 웅진시대

백제는 장수왕의 남침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죽음을 당하자 문주왕 원년(475)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한성은 약 5세기간에 걸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인 도읍지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침입에 의한 갑작스러운 천도에 따라 한성지방에 두었던 모든 기반을 잃게 되었다. 이처럼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고구려의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대중관계 및 대왜관계상 필요한 금강 중심의 수로 확보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¹⁶⁾ 따라서 웅진천도 이후의 대중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었다.

웅진천도 후 다시 사비로 천도하기까지의 대중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14) 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90), 123~124쪽.

15) 《魏書》권 100, 列傳 88, 百濟, 延興 2년.

16) 俞元載, 〈百濟熊津城研究〉(《國史館論叢》 45, 1993), 85~89쪽.

〈표 2〉

웅진시대의 대중관계

번호	연 도	내 용	삼 국 사 기	중 국 사 서	
				기 년	서 명
1	476	조공(송)	문주왕 2년		
2	480	조공(남제)		건원 2년	南 史
3	480	봉책(남제)		건원 2년	南 史
4	484	기타청구(남제)	동성왕 6년		
5	484	허가(남제)	동성왕 6년		
6	484	조공(남제)	동성왕 6년		
7	486	조공(남제)	동성왕 8년		
8	488	전쟁(위)	동성왕 10년		
9	490	전쟁(위)		영명 8년	南 齊 書
10	490	관작청구(남제)		영명 8년	南 齊 書
11	490	봉책(남제)		영명 8년	南 齊 書
12	490	봉책(남제)		영명 8년	南 齊 書
13	495	관작청구(남제)		건무 2년	南 齊 書
14	495	봉책(남제)		건무 2년	南 齊 書
15	502	봉책(양)		천감 1년	梁 書
16	512	조공(양)	무령왕 12년	천감 11년	梁 書
17	521	조공(양)	무령왕 21년	보통 2년	梁 書
18	521	봉책(양)	무령왕 21년	보통 2년	梁 書
19	522	조공(양)		보통 3년	冊府元龜
20	524	봉책(양)	성왕 2년	보통 5년	梁 書
21	534	조공(양)	성왕 12년	중대통 6년	梁 書

문주왕 2년(476)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국제적인 연계를 위하여 다시 송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고구려가 이들의 해로를 막은 까닭에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¹⁷⁾ 이와 같이 웅진시대 초기에는 고구려가 제해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해로가 막혀버리자 중국에는 도달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동성왕대에도 있었다.¹⁸⁾ 웅진천도 이후 백제의 대중관계는 고구려의 해상권 제압으로 매우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에 전하는 웅진시기의 대중관계에 관한 기록은 많은 차이가 있다. 상당부분의 대중관계 내용 가운데 중국사서에 기록

17)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문주왕 2년 3월.

18)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6년 7월.

된 내용들이 《삼국사기》에 빠져 있으며, 《삼국사기》의 기록들이 중국사서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시기에도 보이지만 웅진도읍기에 두드러진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백제가 웅진천도 후 내정의 불안과 국제적 고립으로 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웠다는 점과, 고구려에 의하여 제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대중관계의 향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상황의 일단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왕대에는 남제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고구려의 계속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남제로부터 봉책을 받고 있었으며, 조공과 청구 등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에 의한 대중향로의 차단에서 비롯되었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중관계는 주로 백제에서는 남제가 조공하거나 청구하는 형태였고, 남제에서는 백제가 청구한 관작 등에 대하여 봉책하는 형태였다. 당시 웅진천도 이후 어려웠던 상황에서 백제가 대중관계를 추진한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 주목되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백제와 위가 전쟁하였다는 것이다. 즉 《삼국사기》 동성왕 10년(488)조에 위가 백제를 침입하였다가 백제에게 패했다는 것이다.¹⁹⁾ 이 내용은 《송서》에서 비롯되어 중국 정사의 남조계통 사서에만 전하고 있는 백제의 요서영유설에 관한 방증자료로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기도 하다.²⁰⁾ 《삼국사기》의 이러한 내용은 《남제서》에 기재된 「魏虜」와의 전쟁기록과 같은 것이다.²¹⁾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기년상 2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위나라 군사의 백제침략에 관한 기록은 침략 당사국으로서 위의 정사인 《魏書》에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의 역사서임에도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주목된다. 다만 《資治通鑑》에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齊 永明 6년(488)의 사실로 기록되어²²⁾ 《삼국사기》와 같은 기년으로 되어 있다. 기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魏遣兵擊百濟，爲百濟所敗”로 되어 있어 《삼국사기》의

19)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10년.

20) 김세익, 〈료서지방에 있었던 백제군에 대하여〉(《역사과학》 1967-3), 17쪽.

21) 《南齊書》 권 58, 列傳 39, 百濟國.

22) 《資治通鑑》 권 137, 齊紀 2, 武帝 永明 6년.

내용과 문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동성왕 10년에 보이는 위와의 전쟁기록은 《삼국사기》편찬 이전의 백제자료로부터 전해진 내용은 아닌 듯하며, 《자치통감》의 내용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동성왕기에 편입된 것 같다.²³⁾ 이러한 추측을 더욱 굳게 만드는 것은 《삼국사기》동성왕대의 기록이 기술의 형식은 모두 사건의 발생년도·계절·월 등을 예외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오직 위와의 전쟁 기록이 있는 동성왕 10년기에만 계절이나 발생월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계절이나 월의 내용이 없는 《자치통감》의 내용을 《삼국사기》의 기년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판단된다.²⁴⁾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전하는 「魏虜」와의 전쟁기록은 위와의 전쟁이 아니었으며, 바로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해석된다. 고구려와의 전쟁을 이처럼 위와의 전쟁으로 기록하게 된 것은 남북조시대의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남제서》찬자의 역사인식에 의한 것이었다.²⁵⁾ 《남제서》의 이러한 내용은 기년이 모호하게 기록된 관계로 《자치통감》에서는 제 영명 6년에 기록되었고, 또 이를 그대로 《삼국사기》에서 취했던 것이다. 동성왕은 천도 이후 계속되었던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 고구려를 무찌르고, 이 때 전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 남제에 관작을 청구하여 허락받았던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바로 《남제서》가 전하고 있다.²⁶⁾ 그러므로 웅진시대 특히 동성왕대까지의 대중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사서와 《삼국사기》기록에 보이는 차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중국의 남북조시대로서 남조와 북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특수한 정세였으므로 이러한 중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초래된 역사인식과 함께 사료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의 대중관계에 대한 기록의 혼란이 무령왕대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다. 무령왕대의 대중관계 기록은 중국사서나 《삼국사기》에 모두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는 무령왕 12년(512)에 사신을 양에 보내었다. 동 21년에는 다시 양에 조공하고 표문을 보내어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했으

23) 俞元載, 〈中國正史 百濟傳研究〉(《韓國上古史學報》4, 1990), 271쪽.

24) 俞元載, 〈魏虜의 百濟侵入記事〉(《百濟研究》23, 1992), 94쪽.

25) 俞元載, 위의 글, 83~94쪽.

26) 俞元載, 위의 글, 94쪽.

며 비로소 우호를 통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하였다.²⁷⁾ 이 때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받았던 어려움이 극복되었음을 양에 알렸고, 그러자 양 고조는 무령왕을 봉책하였던 것이다.

行都督百濟諸軍事 鎮東大將軍 百濟王 餘隆은 바다 밖에서 변방을 지키며 멀리서 직공의 예를 닦아 그 충성심이 환히 드러났다. 짐이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전례에 따라 영예로운 관직을 내리노니 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寧東大將軍 百濟王의 관직을 허락한다(《梁書》 권 54, 列傳 48, 諸夷 東夷列傳 百濟).

양에서도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무령왕에게 寧東大將軍의 봉책을 행하였던 것이다. 무령왕대의 이러한 대중외교에 관한 자료들은 백제가 고구려에 의하여 한강유역을 잃고 웅진천도를 단행한 후에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웅진천도 후 고구려가 제해권을 장악한 데 따른 대중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해권을 재확보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중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 사서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내용이 그 이전과 달리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중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무령왕의 이러한 업적에 의해 백제는 고구려가 차지하는 대중관계에서의 국제적 지위에 대항하여 대등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의 뒤를 이은 성왕은 즉위한 이듬해 양으로부터 봉책을 받고, 성왕 6년(528)에는 조공을 하였다. 그 후 성왕 16년에 이르러 백제는 마침내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지형적으로 협소하여 도성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던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천도를 단행케 되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침략에 의해 이루어진 웅진천도 후 63년간의 웅진시대가 끝나게 되었다.

(3) 사비시대

성왕 16년(538) 봄, 백제는 도움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南扶餘로 고쳤다. 《삼국사기》에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기 전의 준비계획 등에 대하여 실제적인 내용들이 전하지 않고 있다.²⁸⁾ 그렇지만 현존하는 사비도성

27)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무령왕 21년.

의 나성·궁궐지·도로 등의 정연한 도성 유적을 통해서 천도 이전에도 상당한 준비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웅진은 고구려세력을 피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서는 훌륭한 도읍지였으나, 협소하고 궁벽져 채도약하려는 백제의 도읍지로서는 적합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상당기간의 준비를 거쳐 사비로 천도하였던 듯하다. 백제의 사비천도는 국호를 남부여라 개칭할 정도로 의욕에 찬 천도였다. 그러므로 사비시대의 대중관계 또한 이에 짝하여 상당히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사비시대의 대중관계

번호	연 도	내 용	삼 국 사 기	중 국 사 서	
				기 년	서 명
1	541	조공(양)	성왕 19년	대동 7년	梁 書
2	541	기타청구(양)	성왕 19년	대동 7년	梁 書
3	541	허가(양)	성왕 19년	대동 7년	梁 書
4	549	조공(양)	성왕 27년	대청 3년	梁 書
5	562	봉책(진)		천가 3년	陳 書
6	567	조공(진)	위덕왕 14년	광대 1년	陳 書
7	567	조공(북제)		천동 3년	北 齊 書
8	570	봉책(북제)	위덕왕 17년	무평 1년	北 齊 書
9	571	봉책(북제)	위덕왕 18년	무평 2년	北 齊 書
10	572	조공(북제)	위덕왕 19년	무평 3년	北 齊 書
11	577	조공(진)	위덕왕 24년	태건 9년	陳 書
12	577	조공(주)	위덕왕 24년	건덕 6년	周 書
13	578	조공(주)	위덕왕 25년	선정 1년	周 書
14	581	조공(수)	위덕왕 28년	개황 1년	隋 書
15	581	봉책(수)	위덕왕 28년	개황 1년	隋 書
16	582	조공(수)	위덕왕 29년	개황 2년	隋 書
17	584	조공(진)	위덕왕 31년	지덕 2년	陳 書
18	586	조공(진)	위덕왕 33년	지덕 4년	陳 書
19	589	조공(수)	위덕왕 36년	개황 9년	隋 書
20	589	견사(수)	위덕왕 36년	개황 9년	隋 書
21	598	조공(수)	위덕왕 45년	개황 18년	隋 書
22	598	기타청구(수)	위덕왕 45년	개황 18년	隋 書
23	598	불허(수)	위덕왕 45년	개황 18년	隋 書

28) 盧重國,《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166쪽에서 동성왕의 사비지역 사냥을 백제의 사비천도와 연계시켜 해석하고 있다.

24	607	조공(수)	무왕 8년	대업 3년	隋	書
25	607	조공(수)	무왕 8년	대업 3년	隋	書
26	607	기타청구(수)	무왕 8년	대업 3년	隋	書
27	607	허가(수)	무왕 8년	대업 3년	隋	書
28	608	조공(수)	무왕 9년	대업 4년	隋	書
29	611	조공(수)	무왕 12년	대업 7년	隋	書
30	611	기타청구(수)	무왕 12년	대업 7년	隋	書
31	611	견사(수)	무왕 12년	대업 7년	隋	書
32	612	견사(수)	무왕 13년	대업 8년	隋	書
33	614	조공(수)		대업 10년	隋	書
34	621	조공(당)	무왕 22년	무덕 4년	舊唐	書
35	624	조공(당)	무왕 25년	무덕 7년	舊唐	書
36	624	봉책(당)	무왕 25년	무덕 7년	舊唐	書
37	624	조공(당)		무덕 7년	冊府元龜	
38	624	조공(당)	무왕 25년			
39	624	조공(당)		무덕 7년	冊府元龜	
40	625	조공(당)	무왕 26년			
41	626	조공(당)	무왕 27년			
42	626	견사(당)	무왕 27년	무덕 9년	舊唐	書
43	626	조공(당)	무왕 27년	무덕 9년	舊唐	書
44	627	조공(당)	무왕 28년	정관 1년	舊唐	書
45	627	견사(당)	무왕 28년	정관 1년	舊唐	書
46	627	견사(당)	무왕 28년	정관 1년	舊唐	書
47	629	조공(당)	무왕 30년			
48	631	조공(당)	무왕 32년			
49	632	조공(당)	무왕 33년			
50	635	조공(당)		정관 9년	冊府元龜	
51	636	조공(당)	무왕 37년			
52	637	조공(당)	무왕 38년	정관 11년	舊唐	書
53	637	견사(당)	무왕 38년	정관 11년	舊唐	書
54	638	조공(당)		정관 12년	舊唐	書
55	639	조공(당)	무왕 40년			
56	640	관작청구(당)	무왕 41년			
57	641	견사(당)	무왕 42년	정관 15년	舊唐	書
58	641	봉책(당)	의자왕 1년	정관 15년	舊唐	書
59	641	봉책(당)	의자왕 1년	정관 15년	舊唐	書
60	641	조공(당)	의자왕 1년			
61	642	조공(당)	의자왕 2년			
62	643	조공(당)	의자왕 3년			
63	644	조공(당)	의자왕 4년			

64	644	견사(당)	의자왕 4년	정관 18년	舊唐書
65	644	견사(당)	의자왕 4년		
66	645	조공(당)		정관 19년	冊府元龜
67	651	조공(당)	의자왕 11년	영휘 2년	舊唐書
68	651	견사(당)	의자왕 11년	영휘 2년	舊唐書
69	652	조공(당)	의자왕 12년		

백제는 사비천도 후 성왕 19년(541) 양에 조공하고, 毛詩博士·涅槃等經義·工匠·畫師 등을 요청하니 양에서 이에 응해 주었다.²⁹⁾ 이는 천도 후 성왕이 가졌던 문화중흥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대에 이르면 기존의 백제의 대중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백제는 종래 남조와 일관하게 유지하던 대중관계에서 벗어나 북조와도 그 관계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위덕왕 14년(567)에는 남조인 陳에 조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다시 북조인 北齊에도 조공하였다. 그 뒤 17년에는 북제에서 위덕왕을 ‘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³⁰⁾에 봉책하였으며, 다시 이어 18년에는 ‘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³¹⁾에 봉책하였다. 뿐만 아니라 19년에는 북제에 또 조공하였다. 이처럼 위덕왕 17·18·19년에 연이어 계속되는 북조와의 교류는 그전까지의 남조 일변도의 대중관계 노선과 다른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위덕왕 24년 진에 다시 조공하기도 하여 남조·북조와 모두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후에도 남조인 진과, 북조인 周에 대한 외교관계를 모색하고 있어 이러한 대중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덕왕대에 이르러 대중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한반도내의 삼국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위덕왕의 선왕인 성왕이 狗川에서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제까지 유지되던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기 위한 나제동맹은 일시에 결렬되고, 동맹관계였던 신라세력이 적대국가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삼국간의 정세변화는 곧바로 대중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나제동맹이 깨지자 신라와 함께 고구려의 남진을 견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북조와 관

29)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성왕 19년.

30) 《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5, 위덕왕 17년.

31) 《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5, 위덕왕 18년.

계를 맺게 된 것이다. 위덕왕대에 이루어진 빈도 높은 사신파견은 이 시기의 급박하였던 백제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중국에서 남북조시대를 마감하고 수가 통일왕조를 세우게 되자, 백제는 수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위덕왕 28년 수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니 수의 高祖는 ‘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에 봉책함으로써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나서 백제는 ‘帶方郡公’, 고구려는 ‘遼東郡公’, 신라는 ‘樂浪郡公’ 등에 봉책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그들 나름대로의 지배질서를 확립하려고 한 점이었다. 이러한 질서관념은 당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데, 남북조시대와 비교하면 상당한 관념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겠다.³²⁾ 반면 고구려와의 불화가 계속되던 백제로서는 진을 평정한 수와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위덕왕 45년(598)에 백제는 관례적인 대중관계에서 벗어나 長史 王辯那를 수에 보내 조공하고 고구려에 대한 협공을 제의하였다.³³⁾ 그러한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왕대에도 고구려 협공에 대한 상호협조에 대한 교섭은 계속되었다. 무왕 12년(611) 수에 사신을 보내고 수의 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하려 함에 행군날짜를 물으니가는 尚書起部郎 席律을 보내서 왕과 상의하도록 하였다.³⁴⁾ 이것은 수가 고구려세력을 의식하여 백제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을 말해주며, 또한 백제로서는 고구려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와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었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협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중국에서는 수가 멸망하고 당이 서게 되었다. 그러자 무왕 22년 사신을 당에 파견하면서 果下馬를 보냄으로써 당과의 외교를 시작하였다. 무왕 25년에는 당 고조가 무왕을 ‘帶方郡王百濟王’에 봉책하였으며³⁵⁾ 백제에서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였다. 당도 수와 마찬가지로 백제를 「帶方郡王」에 봉하고 있어, 수대 이래의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관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후 무왕 27년에는 당에 明光鎧를 바치고, 고구려와의 불화를 토로하자 당에서는 화친을 종용하였다. 무왕 28년에는 백제가 신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32) 俞元載, 앞의 글(1992a), 186~190쪽.

33)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위덕왕 45년 9월.

34)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12년 2월.

35)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25년 정월.

다시 찾으려고 하자, 신라가 급히 이러한 사실을 당에 알리게 되었고 백제의 시도는 실행되지 못하였다.³⁶⁾ 이처럼 당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백제·신라의 끝없는 외교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당으로서 중재자적 입장에서 삼국의 관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삼국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대당관계는 계속되어 무왕 41년에는 자제를 당의 國學에 입학하기를 청하였다.³⁷⁾ 신라와 당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었지만 백제와 당과의 관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무왕이 죽자 당에서는 애도와 함께 ‘光祿大夫’를 추증하였다. 뒤를 이어서 의자왕이 즉위하니깐 당 태종은 祠部郎中鄭文表를 보내 의자왕을 ‘柱國帶方郡王百濟王’에 봉책하였다.³⁸⁾ 그러자 의자왕은 그 해 8월에 사은사를 보내었다. 그 후 백제는 신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였는데, 이 때 대야성의 성주 品釋과 그의 처를 잡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자왕 3년(643)에는 고구려와 화친을 도모하게 되었다. 의자왕은 고구려와 화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모하여 신라 대당외교의 전초기지인 당항성을 공격하였다.³⁹⁾ 신라가 황급히 당에 군대를 청하였으므로 백제는 공격을 멈추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이르면 다시 국제정세는 변화하여, 백제와 고구려는 화친의 상대였고 신라는 당과 밀착된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자왕 5년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신라에서 병사를 징발하였으므로 이 틈을 노려서 신라의 7성을 습취했던⁴⁰⁾ 사실로서도 당시의 정세를 헤아릴 수 있다. 당으로서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를 타개해보려고, 의자왕 11년 당 고종이 중주국의 자세에서 백제에게 극단적으로 신라와의 화친을 종용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백제는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합세하여 의자왕 15년에 신라의 30여 성을 또 다시 쳐부수었다.⁴¹⁾ 이는 당과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김춘추는 당에 사신을 보내

36)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28년 7월.

37)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41년 2월.

38)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원년.

39)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3년 11월.

40)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5년 5월.

41)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15년 8월.

金周成, 《百濟泗泚時代政治史研究》(全南大 博士學位論文, 1990), 158~159쪽.

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군대를 청하였다. 그 결과 당은 의자왕 20년에 신라와 함께 백제를 공격함으로써 공식적인 백제의 대당외교는 끝나게 되었다.

사비시대에 이루어진 빈도 높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보듯이, 백제는 당시의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대중외교를 매우 역동적으로 이끌었다.

(4) 멸망 이후

의자왕 20년(660)에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그 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의자왕대 이후의 대중관계

번호	연 도	내 용	삼 국 사 기	중 국 사 서	
				기 년	서 명
1	660	전쟁(당)	의자왕 20년	현경 5년	舊唐書
2	660	전쟁(당)	의자왕 20년	현경 5년	舊唐書
3	660	봉책(당)	의자왕 20년	현경 5년	舊唐書
4	661	전쟁(당)	의자왕	용삭 1년	舊唐書
5	662	전쟁(당)	의자왕	용삭 2년	舊唐書
6	663	전쟁(당)	의자왕	용삭 3년	舊唐書
7	664	봉책(당)	의자왕	인덕 1년	舊唐書
8	665	회맹(당)	의자왕	인덕 2년	舊唐書
9	677	봉책(당)	의자왕	의봉 2년	舊唐書
10	(682)	봉책(당)	의자왕	(영순)1년	舊唐書

이 때에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과 백제의 부흥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주류를 이룬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봉책의 외교적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더구나 회맹이라는 강압적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당에서 가지고 있던 백제국에 대한 중화주의적 관념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다.

3) 대중관계의 성격

백제가 근초고왕대부터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의자왕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되기까지, 그리고 멸망 이후 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

개되었던 이들 교류의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백제의 대중관계

조 공	봉 책	건 사	청구 및 허락	전 쟁	회 맹	계
65회	25회	14회	17회	7회	1회	129회

백제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공과 봉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이었다. 그러므로 백제의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성격은 조공과 봉책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조공과 봉책은 백제와 중국의 관계가 시작된 이래 끝날 때까지 일관되고 있다. 조공의 성격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연구되기 시작했다. 조공의 근본 의의를 선진문화의 수입에서 찾는 견해도 있고,⁴²⁾ 문화적인 관계보다 정치적 관계에 주목하여 종주국과 종속국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⁴³⁾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내부의 물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외교로 해석하기도 한다.⁴⁴⁾ 하지만 백제의 대중관계에서 보이는 조공의 성격은 조공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봉책과 함께 해석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로 그 성격도 나누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조시대에 이루어진 백제에서의 조공과, 중국에서 행한 봉책은 남북조시대라는 중국의 특수한 시대성과, 삼국의 정립이라는 한반도내의 시대성에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조공은 백제가 고대국가로 발전한 이후 한반도내의 고구려·신라와의 역학관계를 중국과 연결함으로써 유지하려 했던 외교적 행위였다. 그리고 남조에서 백제에 행한 봉책 또한 남북조의 대혼란을 맞이하여 봉책이라는 외교적 행위를 통해 북조에 대한 연합세력을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삼국을 바라볼 때 한반도에 위치했던 낙랑·대방의 인식속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남북조시대의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는 동북아시아의 혼란기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호적 외교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42)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대하여〉(《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4~7쪽.

43) 全海宗, 〈韓中朝貢關係考〉(《東洋史研究》1, 1966), 10~27쪽.

44) 徐榮洙,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性格〉(《東洋學》11, 1981), 149~178쪽.

그러나 중국대륙에 남북조시대가 끝나고 수·당시대에 이르면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수·당은 남북조를 통일하여 나름대로의 지배질서를 확립하고, 고구려를 요동군공, 백제를 대방군공, 신라를 낙랑군공의 전통적이고 도식적인 그들 중심의 질서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백제와의 관계를 ‘帶方藩國’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⁴⁵⁾ 그러므로 수당시대에는 그 이전의 상호적 외교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인식케 되었고, 이러한 바탕 아래 한반도 안에서 야기되는 삼국항쟁의 조정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공과 봉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백제의 대중관계는 시기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하였지만 조공과 봉책으로 일관된 외교관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관계 위에서 부수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기타의 목적들이 더하여진 관계였다고 할 것이다.

〈兪元載〉

2. 백제의 요서영유(설)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즉 백제가 한때 중국의 요서지방을 영유했었다는 「백제의 요서영유설」이다.

《宋書》百濟國傳에서 비롯되어 《梁書》·《南史》 등의 중국측 사서에 기록된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한 내용은 일찍이 주목되어 왔다. 조선조의 실학자들로부터 일본·중국학자들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근래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남북조시대 중국의 정세와 백제의 세력정도를 파악하여,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한 사실의 긍정·부정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러므로 자연히 중국측의 문헌에 나타나는 요서영유 기사와 신빙성 문제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고 논자의 관점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한 내용은 오직 중국의 남조계 사서에만 전하여지고 있는 특수한 기사이다. 그러므로 이 기사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는 우선 남

45) 兪元載, 앞의 글(1992a), 199~202쪽.

북조시대 중국인들이 백제·고구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당시의 동북아시아사상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당사국인 북조계 사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남조계의 사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남조와 북조에서의 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구나 백제의 사료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기록된 남조계 사서인 《송서》·《양서》·《남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북조시대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백제·낙랑·대방 등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백제가 요서를 영유했었다고 하는 기사가 남조계 사서에만 기록된 까닭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1) 요서영유설에 대한 여러 견해

요서영유설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백제의 요서영유 사실에 대한 긍정설·부정설, 그리고 백제가 아닌 馬韓·扶餘·樂浪 등 다른 세력이 주체였다는 견해들로 압축된다.

우선 백제의 요서영유를 긍정하는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실학자인 申景濬¹⁾으로부터 비롯한다. 그 후 林壽圖·丁謙 등의 중국인과 申采浩 등에게 이어져 근자에 이르렀다.²⁾ 특히 신채호는 백제가 근구수왕대에 요서지방을 영유했다 하고, 그 위치를 遼西·山東·江蘇·浙江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의 북조계 사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북조

1) 申景濬, 〈輿地考〉(《東國文獻備考》, 1770).

2) 林壽圖, 〈啓東錄〉 권 1(《中華文史叢書》 30, 1879).

丁謙, 《梁書夷貊傳 地理考證》(浙江圖書館叢書, 1915).

申采浩, 《改訂版 申采浩全集》(1972).

鄭寅普, 《朝鮮史研究》(서울신문사출판국, 1947).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白山學報》 3, 1967).

方善柱, 〈百濟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白山學報》 11, 1971).

金哲竣, 〈百濟社會와 그 文化〉(《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李玟洙, 〈百濟 遼西經略에 대한 考察〉(《韓社大論文集》 1, 1980).

井上秀雄, 《古代朝鮮》(日本放送出版協會, 1972).

의 사관들이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백제가 고구려의 요동진출에 대항하기 위하여 근초고왕 말기에 요서지방을 점령했다는 견해도 있다.³⁾ 그리고 중국의 사민정책과 관련하여 《南齊書》에 나타나는 지명들을 검토함으로써 화북지방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⁴⁾ 요서영유설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 측의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여러 견해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백제가 요서를 영유하게 된 시기·위치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요서영유를 부정하는 입장은 실학자인 韓鎭書를 비롯하여 일본인 연구자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 이들은 주로 중국측 사료에서 백제가 요서지방을 영유했다는 「晉末」에는慕容氏가 요서지방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중국과 백제의 지리적 관계를 볼 때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梁職貢圖》의 기록으로 미루어 요서영유의 주체는 낙랑⁶⁾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밖에 부여⁷⁾ 또는 마한⁸⁾과 관련된 세력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양직공도》의 기록으로 보아 백제가 중국의 요서지방을 영유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정설로 하기엔 미흡하다고 보기도 한다.⁹⁾ 주로 사료의 분석을 통한 중국의 사민책에 유의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⁰⁾

결국 《송서》에서 비롯되어 남조계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의 요서영유설은 아직도 백제의 대중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3) 金庠基, 위의 글.

4) 方善柱, 앞의 글.

5) 韓鎭書, 《海東繹史》續編 권 8(1823).

那珂通世, 〈朝鮮古史考〉(《那珂通世遺書》, 故那珂通世博士功績記念會, 1919).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近藤書店, 1947).

和田博徳, 〈百濟の遼西領有説について〉(《史學》 25-1, 1951).

6) 李弘植, 〈梁職貢圖論考〉(《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7) 金廷鶴, 《百濟と倭國》(大興出版社, 1981).

8) 徐榮洙, 〈古代韓・中關係研究試論〉(《檀國大學院學術論叢》 5, 1981).

李明揆, 〈百濟의 對外關係에 관한 一試論〉(《史學研究》 37, 1983).

9)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一潮閣, 1982).

10) 金煥二, 〈百濟의 遼西經營について〉(《東洋文化學術年譜》 1, 追手文學院大學 文學部 東洋文化學科, 1986).

것이다.

2) 요서영유 기사의 분석

백제의 요서영유에 관한 기록은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다.

사실 자체의 기록은 《송서》 백제국전을 처음으로 《建康實錄》에 의하여 보완된¹¹⁾ 《남제서》 백제국전, 《양직공도》,¹²⁾ 《양서》 백제전, 《남사》 백제전, 《通

책 명	찬 자	편찬년도	내 용
宋 書	沈 約	488년	백제국은 본래 고려와 함께 요동의 동 1,000여 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遼西를 차지했다. 백제가 통치한 곳을 晋平郡 晋平縣이라 한다.
南齊書 建康實錄	蕭子顯	537년 이전	백제는 弁辰의 나라로 晋代에 일어나 藩爵을 받았다. 스스로 百濟郡을 고려 동북에 두었다.
梁職貢圖	蕭 繹	526~539년	백제는 옛부터 내려오는 東夷의 馬韓에 속한다. 晋말에 駒驪가 요동을 차지하니 樂浪 역시 요서 晋平縣을 차지하였다.
梁 書	姚思廉	629~639년	그 나라는 본래 句麗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晋代에 句麗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遼西·晋平의 두 군의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百濟郡을 다스렸다.
南 史	李延壽	627~649년	그 나라는 본래 句麗와 함께 요동의 동쪽 1,000여 리에 있었다. 晋代에 句麗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遼西·晋平의 두 군 땅을 차지하여 스스로 百濟郡을 두었다.
通 典	杜 佑	801년	처음 百家로써 바다를 건넜다 하여 백제라 한다. 晋代에 句麗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遼西·晋平의 두 군을 차지했다(지금의 柳城·北平 사이)

11) 田中俊明, 〈南齊書東夷傳의 缺葉について〉(《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朝鮮史論文集》, 1982), 212~220쪽.

12) 李弘植, 앞의 글, 385~427쪽.

典》 등에 전하는데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표와 같다.

요서영유에 대하여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송서》는 梁의 沈約이 南齊 永明 6년(488)에 편찬한 사서이다. 《송서》 백제전은 모두 45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백제의 대중관계 기사가 403자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서영유 기사가 26자, 그리고 원류기사가 16자, 왕계기사가 6자이다.¹³⁾ 그 중에서 원류기사에는 백제의 출자나 시조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단지 위치에 대하여 고구려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송서》 백제전에는 백제의 문화관계 기사가 수록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송서》가 편찬된 시기에는 백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송서》에 기록된 내용은 주로 백제의 대중외교자료에 의존하여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송서》 백제전에 실린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한 기록 또한 《송서》가 편찬된 5세기 후반경 백제와 중국의 외교관계에서 비롯된 사실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송서》의 내용은 모두 당대의 외교기록인데 요서영유 기록만이 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건기록으로서, 이렇게 전시대의 사실을 기록해야 했던 당시의 시대적 필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송서》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자 고구려와 상대되는 백제는 요서지방을 영유하여 이곳을 晋平郡 晋平縣이라 하였다는 대목이다.

다음은 《건강실록》에 의하여 보완된 《남제서》의 내용이다. 《남제서》는 蕭子顯에 의하여 梁 大同 3년(537) 이전에 편찬되었다. 《남제서》 백제전은 전반 부분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근래 《남제서》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¹⁴⁾ 《건강실록》의 내용 중에서 “스스로 百濟郡을 고려 동북에 두었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남제서》 백제전의 내용도 《송서》와 같이 대중관계가 대부분이며 백제의 문화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이 없다. 이 또한 《송서》와 내용·구성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송서》에는 보이지 않는 “백제군을 고려 동북에 두었다”는 내용이 새로이 나타나고, 《송서》의 「진평군 진평현」이 「백제군」으로 바뀌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남제서》의 내용은 《송서》를 답습하면서도 당대의 변화된

13) 俞元載, 〈周書 百濟傳 研究〉(《百濟研究》 19, 1988), 260~261쪽.

14) 田中俊明, 앞의 글, 219~220쪽.

인식의 일면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되풀이되지만 요서영유설의 전거가 되어 있는 《송서》와 《남제서》의 기록들은 단지 백제의 대중외교자료에 의존하여 편찬되었던 것이므로, 요서영유 기록의 해석은 당연히 그들 사서의 편찬을 전후한 시기에 백제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송서》·《남제서》의 내용 중에서 오직 요서영유에 관한 부분만이 전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이처럼 초시제적으로 기록하여야만 했던 것은 편찬을 전후한 시기의 외교적 상황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직공도》에는 백제의 使臣圖와 함께 백제에 대한 기록이 전하는데, 그 편찬연대가 대략 普通 7년(526)~大同 5년(539)으로 알려져 있다.¹⁵⁾ 그 내용은 백제의 원류, 요서영유, 대중관계, 문화관계의 기사를 담았다. 특히 백제의 원류기사 중에서 출자를 마한으로부터 구한 것이나, 22담로제와 의복에 대한 것은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된다.¹⁶⁾ 그런데 비교적 정확한 찬자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직공도》에서는 백제의 사신도와 함께 백제가 아닌 낙랑이 요서 지역을 영유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양직공도》의 사료로서의 성격상 실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낙랑과 백제와의 관계를 남조의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서영유의 시기를 「晉末」로 지적한 점은 요서영유 시기에 대한 결정적 자료로서 평가된다.

《양서》는 남북조시대에 편찬되지 못하고 당대에 편찬되었다. 《양서》에는 백제의 원류, 요서영유, 대중관계, 제도, 언어 등에 관하여 전하고 있다.¹⁷⁾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이 이전 사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많으며, 東夷에 文身이나 扶桑國들의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백제문화에 대한 내용은 다양하지만, 대중관계에 관한 기사를 제외하고 동시대 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¹⁸⁾ 요서영유에 대한 기록 또한 대체적으로 《송서》를 옮겨 적고 《남제서》의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치소인 百濟

15) 李弘植, 앞의 글, 386~396쪽.

16) 李弘植, 위의 글, 396~425쪽.

17) 俞元載,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韓國上古史學報》4, 1990), 165~167쪽.

18) 高柄翊, 〈中國正史의 外國列傳〉(《東亞交涉史研究》, 서울大 出版部, 1983), 27~29쪽.

郡을 요서·진평의 땅에 두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사》도 당대에 편찬된 사서이다. 백제의 위치에 대하여는 《송서》를, 요서영유에 대하여는 《양서》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¹⁹⁾ 《통전》에 의하면 요서·진평의 위치를 “今柳城北平之間”으로 기록하고 있어²⁰⁾ 위치 추적에 참고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의 요서영유에 관한 직접사료는 《송서》·《남제서》·《양직공도》·《남사》 등 제삼자적인 남조계 사서에만 전하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서영유의 사실은 당사국인 백제와 북조의 사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요서영유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료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백제가 요서를 영유했다는 시기를 전후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백제와 관련된 馬韓·樂浪·帶方·靺鞨²¹⁾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이들의 활동과 중국측의 사료에 등장하는 요서영유에 관한 간접사료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책 명	연 대	내 용
1	三國史記	온조왕 4년(B.C. 15)	사신을 보내 낙랑과 修好
2	三國史記	온조왕 8년(B.C. 11)	馬首城과 瓶山柵을 쌓아 낙랑과 失和
3	三國史記	온조왕 10년(B.C. 9)	神鹿을 마한에 보냄
4	三國史記	온조왕 11년(B.C. 8)	낙랑이 瓶山柵을 습격, 禿山·狗川柵을 세워 낙랑의 길을 막음
5	三國史記	온조왕 13년(B.C. 6)	사신을 마한에 보내 천도를 알림
6	三國史記	온조왕 17년(B.C. 2)	낙랑이 침입하여 慰禮城을 불태움
7	三國史記	온조왕 18년(B.C. 1)	靺鞨長 素牟를 마한에 바침. 낙랑의 牛頭山城을 습격하려 함
8	三國史記	온조왕 24년(6)	熊川柵을 쌓아 마한왕과 분쟁, 결국 파괴함
9	三國史記	온조왕 26년(8)	마한을 습격하였는데 오직 圓山·錦峴 2성이 항진함
10	三國史記	온조왕 27년(9)	2성이 항복하여 마한을 드디어 멸함
11	三國史記	온조왕 34년(15)	마한의 옛장수인 周勤이 牛谷城에서 반란, 진압

19) 俞元載, 앞의 글(1990), 170~171쪽.

20) 《通典》 권 185, 百濟.

21) 靺鞨과의 관계는 東濊와의 관계로서 俞元載, 〈三國史記僞靺鞨考〉(《史學研究》 29, 1979)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어 생략한다. 신라·고구려·왜의 내용 또한 생략한다.

12	三國史記	온조왕 43년(25)	남옥저의 仇頗解 등이 귀순하니 漢山의 서쪽에 안치
13	後漢書	建光 1년(121)	고구려·마한·예맥이 玄菟城을 포위하자 부여왕이 격파함
14	後漢書	延光 1년(122)	부여왕이 玄菟를 구하기 위해 고구려·마한·예맥을 파함
15	三國史記	고이왕 13년(246)	幽州刺史인 毋丘儉과 樂浪太守인 劉茂, 帶方太守인 王遵이 고구려를 치려 하자 左將 眞忠으로 낙랑의 변경주민을 습취, 그 주민을 돌려보냄
16	三國史記	책계왕 1년(286)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구원을 청해 군대를 내어 구원함. 蛇城을 쌓아 고구려에 대비함
17	三國史記	책계왕 13년(298)	漢과 貊人의 침입을 막다 왕이 죽음
18	三國史記	분서왕 7년(304)	낙랑의 西縣을 습취,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 왕이 죽음
19	晉書	永和 1년(345)	句麗·百濟·宇文·段部人들을 서쪽 변경으로 옮겨 감독케 할 것을 요구함
20	資治通鑑	永和 2년(346)	부여가 鹿山에 있을 때 백제의 침략을 받아 서쪽으로 옮김
21	三國史記	동성왕 10년(488)	魏가 침입하였으나 패함
22	南齊書	永明 8년(490)	魏虜가 기병 수십만으로 침입하였으나 牟大에게 패함
23	三國史記	崔致遠傳	고려·백제의 전성기에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吳越, 북으로 幽燕 齊魯를 침

위의 내용을 시기적으로 분류해보면 《삼국사기》에 의한 온조왕대의 낙랑·마한과의 관계 및 《후한서》의 마한, 그리고 3~4세기에 이르는 《삼국사기》의 백제와 낙랑·대방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중국측 사료에 의한 기록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19·20·21·22 등이 백제의 요서영유에 관한 간접사료로서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백제와 낙랑·대방과의 관계와 중국사서에 나타나는 간접사료 내용의 연계성이다. 즉 낙랑과 대방이 요서지방으로 옮긴(313) 이후에는 중국측 사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백제관계 내용들이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국측 사서에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백제의 존재에 대하여 실로 시사하는 바 크다. 중국측 사서에서는 백제의 요서영유 시기를 「晉末」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접사료에 나타나는 내용의 연계성으로서부터 진대 백제와 관련된 낙랑·대방의 활동은 주목되어져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백제와 고구려의 고대국가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세력이었다. 요서지방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토착인에 의해서 지배된²²⁾ 세력이었다. 이러한 낙랑과 대방의 역사활동은 그들의 요서이동으로 인해 《삼국사기》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백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반도 서남부에 비정하는 일반적인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측 사서에서는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백제관계 기록들이 요서지방과 관련하여 연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요서영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3) 남북조의 백제·고구려관

남북조시대 남조 및 북조에서 당시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에 대하여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남북조시대 이루어졌다고 하는 요서영유의 이해에 앞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우선의 과제이다. 그 일단은 남북조에서 백제나 고구려의 왕들에게 행한 봉책관계에서 살필 수 있다.²³⁾

진에서는 백제의 근초고왕을 ‘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봉책하였으며,²⁴⁾ 송에서는 고구려의 장수왕을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에 봉책했다.²⁵⁾ 고구려나 백제의 왕들에게 준 봉책명을 의례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²⁶⁾ 오히려 이러한 의례적인 봉책명이야말로 당시 남북조에서의 백제·고구려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²⁷⁾ 진과 송

22) 三上次男, 《古代東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1977).

23) 남북조에서 백제나 고구려의 왕들에게 봉책했던 봉책명은 바로 그들의 백제·고구려에 대한 관념의 표식인 것이다.

24) 《晉書》권 9, 帝紀 9, 簡文帝 咸安 2년 6월.

25) 《宋書》권 97, 列傳 57, 東夷, 高句麗, 晉安帝 義熙 9년.

26) 坂元義種,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古代の朝鮮》, 學生社, 1974).

江畑 武,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1974).

27) 高柄翊, 앞의 책.

에서 백제나 고구려의 국왕들에게 모두 낙랑과 결부된 봉책명을 주었다는 것은 당시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던 백제나 고구려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음을 짐작케 한다. 더욱이 남제에서는 백제의 高達을 龍驤將軍帶方太守로, 慕遺를 龍驤將軍樂浪太守로 봉책하는²⁸⁾ 한편 고구려왕에게도 高句麗王樂浪公을 봉책하였다.²⁹⁾ 이처럼 남제에서도 백제·고구려를 전통적인 낙랑·대방의 관념 속에서 혼동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뒤를 이은 梁 나라도 역시 같았다. 그러므로 남조의 진·송·제·양에서는 전통적인 낙랑과 대방에 대한 관념 때문에 백제·고구려에 대한 독자적인 관념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남조에서는 동시대적인 백제보다 전통적인 낙랑·대방의 관념 속에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남조에서의 백제·고구려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북조에서는 보다 동시대적인 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그것은 봉책관계에서 설명된다. 북조의 봉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燕代에는 남조와 같이 고구려의 국왕에게 아직도 ‘樂浪公’이나 ‘遼東帶方二國王’을 봉책하였지만, 그 뒤의 북조국가들은 고구려왕에게 모두 ‘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遼東郡公高句麗王’·‘遼東郡開國公遼東王’ 등을 봉책하여 낙랑·대방과 관련된 봉책명이 사라진다는 점이다.³⁰⁾ 여기에서 다시 상기할 것은 남조에서도 晉末 백제왕에게 ‘樂浪太守’를 봉책하였던 점이다. 그러므로 진말, 연대에 진은 백제왕에게 ‘樂浪太守’를 봉책하였고, 연은 고구려왕에게 ‘樂浪公’·‘遼東帶方二國王’을 봉책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미 요서지방으로 이동한 낙랑·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적인 관념을 고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이 남조에서는 계속되나, 북조에서는 魏代부터 고구려왕에게는 낙랑·대방과 관계없는 보다 동시대적인 인식에 입각한 봉책만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백제에게는 계속하여 ‘帶方郡公’을 봉책하였는데,³¹⁾ 이것은 당시 백제와 대방을 연관시켜서 이해하여야 할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28) 《南齊書》권 58, 列傳 39, 百濟國.

29) 《南齊書》권 58, 列傳 39, 高麗國.

30) 俞元載, 〈中國正史의 百濟觀〉(《韓國古代史研究》6, 1992), 191~195쪽.

31)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위덕왕 17년.

《北齊書》권 8, 帝紀 8, 後主 武平 원년 2월.

남조에서는 계속하여 전통적인 낙랑과 대방에 대한 관념의 틀을 깨뜨리지 못함으로써 당시의 백제나 고구려에 대한 동시대적인 관념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조에서는 연대에 한하여 낙랑·대방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위대부터 北齊·北周代에는 백제에 대방군공, 고구려에 요동군공을 봉책하는 보다 동시대적 관념이 형성되었다. 북조에서는 이처럼 백제·고구려에 대한 관념이 동시대적이면서 분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백제의 요서영유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고, 낙랑·대방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남조계의 사서에만 기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서영유 기록에 나타나는 특색과 함께 특히 진말·연대에는 남조나 북조에서 모두 백제나 고구려에 대해 전통적인 낙랑·대방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실은 서로 연관하여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조와 북조의 백제·고구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남조계의 사서에서는 고구려나 백제국의 위치를 기록함에 구체적이지 못하며 더구나 당시 한반도에 있지도 않던 대방이 거리를 표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³²⁾ 그러나 북조계의 사서에서는 남조계 사서보다 구체적인 거리나 동시대적인 지명·국명에 의하여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³³⁾

이처럼 고구려나 백제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기록한 북조계의 사서에서는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제의 위치조차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못했으며, 전통적인 낙랑·대방의 관념에 의해 동시대의 백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남조계의 사서에서만 요서영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암시하는 바 크다. 이들을 통해 요서영유설은 남조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중국의 남북조와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관념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2) 俞元載, 앞의 글(1992), 191~195쪽.

33) 俞元載, 위의 글, 191~199쪽.

4) 낙랑·대방의 요서이동과 《송서》·《남제서》

(1) 낙랑군과 대방군

한의 무제 때 설치된 漢四郡 가운데 낙랑과, 그 후의 대방은 삼국의 발전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 《삼국사기》를 통해 그들의 역사활동을 살펴보면 백제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다. 그 내용은 백제가 온조왕 때부터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후 고이왕·책계왕·분서왕대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온조왕대의 기록은 주로 백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낙랑과의 관계로서, 도읍지가 그들에 의하여 불타버리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³⁴⁾ 이를 보면 낙랑은 초기 백제에 있어서 극복되어야 할 최대의 현안문제였던 것이다. 그 후 고이왕대 이후인 3~4세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백제와 대방과의 관계이다. 책계왕대에 고구려가 대방을 침략하자 대방은 백제에 군대를 청하였고, 백제에서는 대방 「舅甥之國」이라 하여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낙랑에 비교할 때 대방은 백제와 이 시기에 상당히 밀착된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백제왕이 시해당하는 등 낙랑과는 계속 적대관계에 있었으나, 대방과는 적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백제와 대방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後漢 교체기에는 낙랑군에서 王調가 태수 劉憲을 살해하고 난을 일으켰다. 광무 6년(30) 한에서 파견된 낙랑태수 王遵에 의하여 난이 평정되고, 낙랑은 다시 후한의 지배하에 들게 되었다. 이 때 후한은 낙랑의 동부 7현을 포기하고 그 곳에 토착인으로 현후를 임명하였다. 특히 환제·영제대에는 이 지역에서 한·예가 강성하였으므로 낙랑주민이 한의 영역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낙랑 屯有縣 이남의 땅은 황무지화되었고 마침내 요동의 公孫氏가 대방군을 설치하게 되도록 이르렀다.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은 공손씨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들이 魏에 멸망한 다음에는 위의 幽州刺史에게, 西晉이 위를 대신하면서는 서진의 유주자사에게 속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낙랑은 대방군을 분리한 이후 11현에서 대동강 이북의 5현은 없어

34) 《三國史記》 권 22,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17년 춘.

지고 이남의 6현만이 남게 되었다.

《후한서》에 의하면 유주의 속군으로 낙랑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낙랑의 속현 중에 대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서》 지리지에 의하면 평주에 속하게 되는데 대방군이 낙랑군과 함께 독립된 군으로 되어 있다.³⁵⁾ 이 때의 대방은 《후한서》에 낙랑의 속현으로 되어 있던 列口·昭明·長岑·提奚·帶方·含資·海冥 등을 관할하였다. 이른바 남부도위 소관의 7현을 관할하고 그 치소를 대방현에 두었던 것이니, 오늘날의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속칭 唐土城이 치소가 되는 곳이었다.³⁶⁾ 《진서》지리지에서 당시의 군세를 살펴보면 낙랑보다 대방의 군세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³⁷⁾ 이러한 대방군은 《위서》지리지에서는 다시 영주에 속하는 낙랑군의 속현으로 개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낙랑·대방은 진대에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세력이었으며 더욱이 대방은 요동군 다음가는 군세였다. 이들은 4세기에 이르면 이미 중국의 예속상태에 놓여 있지 않고 토착호족들에 의하여 지배되었다.³⁸⁾ 이러한 세력 집단이 바로 요서지방에 웅거하고 있던 모용씨에게로 귀속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실로 당시의 중국인들에게는 중요한 세력의 변화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특히 동진으로서는 모용씨세력과 대치하던 시기이므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들이 이동하였던 요서는 요동과 마주하는 지역이다. 이들이 나뉘어지는 곳은 요하이다. 요하는 남만주를 동서로 가르고 발해만으로 유입된다. 요서군은 한대 이전에 이 지역의 서쪽에 설치되었는데 때에 따라 변동이 심했던 지역이다. 요서군의 중심지는 大凌河 하류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한대에는 烏丸의 침입에 의하여 지역이 축소되기도 하였고, 요동속국이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후한 말기에는 鮮卑에 의하여 부활되었으나 다시 개편되었다가 晋末까지는 진에 속했었다. 그 후 이곳은 선비족이 건립한 前燕·北燕·北魏 등의 중심지로 되었다. 백제가 요서를 영유했던 시기가 진나라 말기로 규정될 때 이 시기의 요서지방은 선비족들

35) 《後漢書》권 33, 郡國志 23.

《晉書》권 14, 志 4, 地理 上.

36) 李丙燾, 〈眞番郡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7) 《晉書》권 14, 志 4, 地理 上, 平州.

38) 三上次男,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1966).

에 의하여 점령된 역사활동의 중심 마당이었다.³⁹⁾

(2) 낙랑·대방의 요서이동과 《송서》·《남제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고구려가 미천왕 14년(313) 10월에 낙랑군을 침입하여 남녀 2천여 명을 노획했으며, 이듬해 7월에는 대방군을 침입했다. 미천왕대의 낙랑·대방에 대한 침략기사를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에서 이들의 역사활동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이후의 낙랑·대방에서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사료를 살필 수밖에 없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낙랑군이 이 당시 요서지방에 웅거하고 있던 모용씨에게로 귀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하지만 거기에는 대방의 귀속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동에 따른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없다. 《위서》에서는 북위 때에 낙랑과 대방이 함께 유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 때의 이동이 어느 곳으로부터의 이동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유주로 옮겨진 낙랑·대방의 위치는 요서의 龍城 부근의 어느 곳으로 추정되며, 용성은 바로 수나라 때의 柳城을 가리킨다.⁴²⁾ 한편 《진서》 지리지에 의하면 平州의 속군 가운데에는 창려군·요동군·낙랑군·현도군·대방군이 속해 있었다. 그런데 《위서》 지형지에 의하면 낙랑군이 南樂州 및 營州條에 모두 나타나 있다.⁴³⁾ 이처럼 같은 책에 낙랑이 2개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낙랑의 위치가 때에 따라 이동하였던 사실을 알게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남영주는 북위의 孝明帝 延昌연간에 영주가 거란에 점령당하자 永熙(효무제) 2년(533)에 현재의 保定府 근처로 옮긴 이후의 명칭이다. 그러므로 영주조에 기록된 낙랑의 위치에 대한 고찰이 곧 낙랑의 추이를 추적하는 데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⁴⁴⁾ 영주조의 기록에 의하면 다시 대방이 낙랑에 속하게 되었으며 낙랑군의 치소를 連城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곳의 속현으로서 영락이 있었는데 이곳은 錦州에 해당된다.⁴⁵⁾ 그

39) 傅樂成, 《中國通史》上(1974).

岡崎文夫, 《魏晉南北朝通史》(1943).

40) 《資治通鑑》권 88, 晉愍帝 建興 원년.

41) 《魏書》권 4 下, 本紀, 太武帝 延和 원년.

42) 《資治通鑑》권 96, 晉成帝 咸康 4년.

43) 《魏書》권 106, 志 5, 地形 2 上.

44) 孔錫龜, 〈高句麗의 遼東進出史研究〉(忠南大 碩士學位論文, 1983), 21~23쪽.

45) 《遼史》권 39, 志 9, 地理 3, 中京道, 錦州.

러므로 효명제 正光 말년경 낙랑군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금주 부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낙랑은 용성·금주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낙랑군의 위치가 시기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더 자세한 추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사민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방에 대해서는 더욱 영세한 자료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 대방에 대하여는 진민제 건흥 원년(313)의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낙랑과 함께 요서지방으로 이동하였는지 또는 그 후 이동하였는지도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미천왕 15년에 고구려가 대방을 남침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낙랑이 이동한 이후에 이동한 것 같다. 《자치통감》에는 대방 태수 王誕을 左長史에 임명한 내용이 있다.⁴⁶⁾ 이는 慕容皝이 慕容廆의 뒤를 이으며 관작을 주는 기록으로써 이미 모용외 때 대방이 이동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국양왕 2년(385)에 後燕王 慕容垂가 고구려의 요동 침공에 대항하여 대방왕 佐로 하여금 용성을 지키게 한 것으로 보아⁴⁷⁾ 대방의 위치 비정에 시사하는 바 크다. 곧 낙랑과 인접된 지역에 위치하였던 것 같다.

한반도에서 고대국가가 발전하던 시기에 커다란 영향력을 과시했던 낙랑·대방은 4세기에 이르면 이미 중국의 예속을 벗어나 토착세력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고구려·백제의 성장에 따라 요서지방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모용씨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진과 모용씨가 대치하던 시기였으니 진으로서는 커다란 세력의 변화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낙랑·대방이 모용씨에게로 귀속된 사건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주목하여야 할 정세 변동이었다. 그런데 사료상에는 낙랑·대방의 요서이동이란 역사적 사건과, 백제의 요서영유란 국제적인 세력 변화가 진대에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북조계의 사서에서는 낙랑·대방의 요서이동에 관련된 것들만 기록하였고, 백제의 요서영유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남조계의 사서에서는 반대로 요서영유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요서영유 기사는 남조측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울러 이 시기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

46) 《資治通鑑》 권 95, 晉成帝 咸和 7년 6월.

47)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양왕 2년 6월.

한 북조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남북조시대 남조의 백제관과, 문제의 발단이 된 《송서》·《남제서》 편찬 전후의 백제와 남조와의 외교관계를 통하여 뒷받침된다. 남조에서는 전시대부터의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여 동시대적인 백제보다도 낙랑과 대방이 그들의 인식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의례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백제왕의 봉책명을 여전히 낙랑·대방과 연계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백제의 요서영유 사실이 처음으로 기록된 《송서》·《남제서》가 편찬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남조와 백제와의 관계는 주목된다.

《송서》·《남제서》의 내용은 송이나 남제의 외교자료에 의한 사실만을 기록한 사서이기⁴⁸⁾ 때문에 요서영유 기사도 당시의 외교적 사실의 반영이다.

《송서》의 편찬은 양나라의 십약이 남제 때인 영명 6년(488)에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송서》가 편찬된 5세기 후반경의 백제와 남조의 외교관계 사료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남조에서 백제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졌던가 하는 것이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송서》에 보이는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한 기사는 다른 내용과 달리 송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의 기록이다. 이는 《송서》의 편찬 시기에 이루어진 외교관계에 의하여 전시대에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제서》의 내용 또한 《송서》와 성격을 함께 한다. 《남제서》의 내용도 모두 남제 때의 사실에 관한 기록인데 오직 요서영유의 사실만은 전시대의 내용이다. 이 또한 외교적 상황에 의해 전시대의 사실을 기록했다고 해석된다. 이 때의 외교적 상황들로 주목되는 것은 바로 《남제서》 백제전의 내용이다.

《남제서》 백제전의 전반 부분은 결실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백제가 제에 대하여 관작을 청구하는 내용과 이를 허락하는 글이다. 결실된 앞부분에 백제의 요서영유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⁴⁹⁾ 그런데 그 뒤를 이어 기록된 상표문은 《송서》가 편찬된 직후에 백제에서 남제로 보낸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동성왕 12년(490)에 ‘建威將軍廣陽太守’인 高達을 ‘龍驤將軍帶方太守’로 봉해줄 것을 청하였으며, 동성왕 17년(495)의 상표문에서는 慕

48) 俞元載, 앞의 글(1990), 161~162쪽.

49) 田中俊明, 앞의 글, 213~220쪽.

遺를 ‘樂浪太守’로 봉책하도록 청하여 허락받았다.⁵⁰⁾ 동성왕이 직접 남제에 청구한 관작이 ‘대방태수’·‘낙랑태수’란 점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에 앞선 개로왕 18년(472)에도 백제에서 북위에 보낸 사신 가운데 帶方太守 張茂가 있었으므로⁵¹⁾ 이 시기에 나타나는 백제의 대중관계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선 4세기 후반에는 남북조에서 모두 낙랑·대방이 동시대적인 백제보다 강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백제와 남조의 외교문서상에 다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4세기 후반의 관념이 이어져 5세기 후반에 이르면 백제에서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공공연하게 대방태수를 일컫고 관작을 청하였으며, 또한 낙랑태수의 관작을 청하여 이를 허락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백제의 태도는 4세기 중엽부터 대립관계에 있던 고구려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인 듯하다. 이러한 백제의 대중관계는 문주왕 원년(475) 고구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한성이 함락당하자 심화된 것 같다. 백제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즉 《송서》가 편찬되는 전후에 중국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공공연히 ‘대방태수’·‘낙랑태수’의 관작을 청하여 허락받았으며, ‘대방태수’를 사신으로 보내었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의 요동진출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낙랑과 대방에 대한 백제의 영유권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남북조의 첨예한 대치상황에서 《송서》의 편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송서》의 찬자인 심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대에 이루어진 낙랑·대방의 요서이동을 백제와 관련된 사실로 기록하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다른 내용과 달리 전대의 사실이더라도 초시제적으로 오직 요서영유의 사실만은 기록하게 된 것 같다. 《송서》가 편찬되기 이전인 개로왕 때에 이미 백제의 이러한 주장이 외교문서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제서》의 내용 또한 《송서》의 답습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편찬된 것으로 이해된다. 《남제서》의 “스스로 백제군을 두었다”는 내용도 낙랑·대방군을 지칭하는 듯하다. 《남제서》에 나타난 백제에서의 ‘낙

50) 《南齊書》 권 58, 列傳 39, 百濟國.

51) 《魏書》 권 100, 列傳 88, 百濟.

랑태수'·'대방태수'의 관작청구에 따른 허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조의 대치상태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송서》·《남제서》에서는 당대의 외교적 사실에 국한된 내용들만 기록하였으나, 오직 요서영유 기사만은 전대의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요서영유를 방증하는 자료로 간주되던 《남제서》의 백제와 魏虜와의 전쟁기사 및 《삼국사기》 동성왕의 북위와의 전쟁기사는 잘못 해석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고구려와의 전쟁기사가 아니었는가 추측된다.⁵²⁾ 그러므로 이를 통해 《남제서》 찬자의 역사인식상의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는 것이다. 당시 고구려와 북위는 밀착된 세력으로 고구려의 세력을 무찌른 백제에서는 이 결과를 북위와 적대관계에 있던 남제에 보고하고, 전쟁의 공로자들에 대한 봉책을 요구한 것이었다. 바로 이 봉책요구를 위한 상표문이 《남제서》 백제전의 동성왕 상표문이며, 이를 통해 낙랑·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허락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제서》의 찬자 역시 《송서》처럼 《남제서》 편찬 이전에 이루어진 낙랑·대방의 요서지방으로의 이동을 백제와 관련되게 기록함으로써 《남제서》의 당대적 서술의 성격과 달리 전대의 초시제적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 역시 남북조시대에 편찬된 《양직공도》의 기록이다. 《양직공도》에는 낙랑이 요서영유의 주체로 되어있다. 백제국의 사신도에 낙랑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양대에도 백제·낙랑에 대한 관념상의 혼란이 있었으며 시대적 상황에서 동일시하였던 까닭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는 남조에서 낙랑과 백제와의 관념상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더욱이 《통전》에 의하면 백제가 요서지방을 영유한 후 두었던 치소가 柳城과 北平의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⁵³⁾ 이 유성은 바로 낙랑이 요서로 이동한 후 위치하였던 지역이었다.

그 밖의 요서영유에 대한 기록인 《양서》는 당대의 편찬사서로서, 《송서》·《남제서》를 답습하였고, 《남사》는 《양서》를 옮겨 적은 것이었다.

52) 俞元載, 〈魏虜의 百濟侵入記事〉(《百濟研究》 23, 1992), 81~94쪽.

53) 《通典》 권 185, 邊方 1, 百濟.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한 내용이 남조계 사서에 국한된 것은 남조에서 전통적인 낙랑·대방의 관념에 의하여 백제관이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5세기 후반 고구려·북위와 적대관계에 있던 남조는 백제국으로부터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낙랑·대방의 영유권 주장을 북조에 대항하기 위해 이를 인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러한 백제의 낙랑·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5세기 후반 고구려에 의한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로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바로 백제 요서영유의 기록이 처음으로 발단되는 《송서》가 편찬되는데, 이 때 이러한 백제와 남조와의 외교적 관계가 반영된 것이 요서영유에 대한 기사이었다. 그러므로 《송서》의 내용 가운데서 전대에 이루어진 낙랑·대방의 요서이동과 관련한 백제의 요서영유 기록만이 초시제적 사실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제서》도 같은 남북조시대에 편찬된 사서로서 《송서》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양서》·《통전》 등 당대 편찬사서는 모두 《송서》·《남제서》를 답습함으로써 요서영유에 대한 기사는 오직 남조계의 사서에만 기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백제나 고구려관이 보다 동시대적이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요서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사국들에 관한 기록인 북조계 사서에서는 백제의 요서영유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될 수 없었다. 단지 낙랑·대방의 이동에 따른 역사활동만이 기록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서영유의 당사국인 백제의 기록에도 요서영유에 관하여 전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俞元載〉

3. 왜와의 관계

1) 대왜관계의 시작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본사료로는 《삼국사기》와 《日本書紀》가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은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본기에 10여 개의 짝막한 기사가 실려 있을 뿐이며, 그것도 주로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전반기에 걸

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백제의 대왜관계를 구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일본서기》에는 백제관계 기사가 80여 개조나 이르고 있어 《삼국사기》보다 자료를 많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전하고 있는 백제관계 기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일본학계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서기》는 고대 천황제국이 건설을 기념하여 8세기 초 일본의 지배층이 천황가의 유구성과 존엄성을, 나아가서는 일본열도 지배의 정당성을 천명할 목적으로 편찬한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역사서이다.¹⁾ 그 결과 국내관계 기록이나 대외관계 기록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개작과 왜곡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서기》에서 백제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의 근거가 된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記》라는 이른바 백제3서는 백제가 망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본 조정에서 일하던 백제사람들이 가지고 건너간 본국의 역사기록을 당시 사정에 의해 개서하고 수식하여 일본당국에 제출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²⁾ 이들에 의해 제출된 내용들은 일본인들의 손을 거쳐 다시 윤색되어 《일본서기》에 인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일본서기》의 백제관계 기록으로부터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료비판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삼국사기》의 내용과 양적으로는 풍부하나 내용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사료비판을 통해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이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가 일차된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가 아신왕 6년(397)에 왜국과 우호를 맺고 태자전지를 볼모로 한 것이³⁾ 왜국과의 관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는 전지왕 원년(405)에 기록된 전지왕의 등극과정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⁴⁾ 즉 《삼국

1) 李基東, 〈百濟의 勃興과 對倭國關係의 成立〉(《古代韓日文化交流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250쪽.

2) 李基東, 위의 글, 251쪽.

3)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6년 5월.

4)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전지왕 원년.

사기》는 4세기 말에 이르러 처음으로 왜국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아신왕대에 백제와 왜가 처음으로 접촉하였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때의 사실은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왜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神功皇后 섭정 46년(246; 고이왕 13; 병인)부터 백제와 왜국의 접촉기사가 실려 있다. 그리고 신공황후 52년에는 백제에서 왜로 七枝刀와 七子鏡을 보내고 있어 외교적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일본학계에서 통설화되어 있는 바에 따라 간지 2운(갑) 120년을 내려 조정하면 백제의 근초고왕대에 해당하게 된다. 이곳에 실려있는 기사는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볼 때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일찍이 주목되어 온 바 있다. 따라서 신공기의 백제관계 기사를 일부 수정하여 취하면 당시의 백제사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⁵⁾ 《일본서기》의 상고기년이 《삼국사기》의 것보다 120년 빠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내려 조정하면 적어도 《일본서기》 신공기가 백제의 근초고왕대에 해당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공기의 백제관계 기사의 내용은 근초고왕이 전남지방에 출정하여 이 지역을 정략하는 기록으로 이해되고 있다.⁶⁾ 그러므로 백제는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아신왕대에 이르러 왜국과 처음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며, 이전인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와 왜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사에서 근초고왕대는 대외관계에서 주목되는 시기이다. 백제는 근초고왕 21년(366) 3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냈으며, 23년에도 또 보내어 진한의 통일세력으로 급성장한 신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초고왕은 태자인 근구수에게 고구려의 雉壤을 공격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하였다. 더구나 근초고왕 27년에는 중국의 핏에 공식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대중관계를 시작하는 등 백제가 동

5)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百濟研究》1;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14쪽).

千寬宇, 〈復元加耶史〉(《文學과知性》9-1, 1978), 915~918쪽.

6) 李丙燾, 위의 글.

千寬宇, 위의 글.

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근초고왕대의 신라·고구려·진과의 관계에 짝하여 대외관계 또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왜관계의 전개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왜와 처음으로 접촉한 것을 아신왕대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미 근초고왕 때부터 정치적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백제에서 七枝刀 1구와 七子鏡 1면을 보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⁷⁾ 이 칠지도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의 奈良縣 天理市の 石上神宮에 소장된 七枝刀를 그 당시의 유물로 생각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런데 《일본서기》 신공황후 52년은 서기 252년에 해당된다. 《일본서기》의 상대기사 연대는 간지 120년씩을 내려서 이해하여야 되는 것이 통설이므로 위의 기사에 대한 실제의 연대는 372년이 된다. 이는 바로 근초고왕 27년이다. 근초고왕 27년은 백제가 중국의 파과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칠지도의 앞뒷면에는 61자의 金象嵌 명문이 있어 주목되어 왔다. 이 명문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⁸⁾ 그런데 만약 거기에 새겨진 명문의 연호를 백제의 泰和 4년(372)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⁹⁾ 앞에서의 연대 추정은 대체적으로 수궁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초고왕 때부터 왜와

7) 《日本書紀》권 9, 神功皇后 52년 9월 정묘 초하루 병자.

8) 栗原朋信, 〈七支刀銘文についての一解釋〉(《日本歴史》 216, 1966).

金錫亨, 《古代韓日關係史》(勁草書房, 1969).

神保公子, 〈七支刀の解釋をめぐって〉(《史學雜誌》 84-11, 1975), 35~56쪽.

李丙燾, 〈百濟七支刀考〉(《震檀學報》 38, 1974).

李進熙, 〈七支刀研究의 百年〉(《廣開土王碑と七支刀》, 學生社, 1980), 37~66쪽.

山尾幸久, 〈石上神宮七支刀銘の百濟王と倭王〉(《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9) 李丙燾는 百濟의 연호일 것으로 그리고 원년을 369년으로 해석하고 있다(위의 글, 1974). 그리고 金錫亨은 泰和를 백제의 연호로 해석하였고 그 연대는 5세기의 어느 해로 추정하였다(위의 책). 한편 근래에는 5세기 후반에 비정하는 견해들이 있기도 한다.

森浩一(〈鐵劍文字は古墳文化のどこに位置するか〉, 《鐵劍文字は語る》, 1979)은 5세기 중엽이후 6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고분에서 출토되는 칼을 주목하여 369년설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村上英之助(〈考古學からみた七支刀製作の年代〉, 《考古學研究》 25-3, 1978)는 新羅古墳 출토유물과 비교해 548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한편 李基東(앞의 글)은 5세기 후반설을 지지하고 있다.

접촉하여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 근초고왕 27년은 중국의 동진과도 공식적으로 최초의 대중관계를 수립하던 시기이다. 백제가 이처럼 대외적으로 외교관계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내적인 발전의 결과였다. 마한의 잔여세력을 병합하고 북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크게 이겼으며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근초고왕의 위업은 백제가 중국과 왜에 정식으로 통교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

《삼국사기》백제본기의 초기 기사에는 왜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신라본기에 의하면 신라는 건국 이래 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왜구의 피해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구의 침입은 심지어 국도를 위협하였으며 金城이 포위된 것도 수차례 이르렀다. 그러나 왜구관계의 기사는 지증왕대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신라는 왜와 접촉이 잦았던 반면에 백제가 왜와 접촉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를 자주 쳐들어 온 왜구의 소행이 거국적으로 조직화된 군사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해적들이었거나 지방단위의 소규모 병력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 초기의 왜와의 접촉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성격의 왜와 인접하고 도움이 바다에 가까운 신라와 달리, 백제가 내륙지역인 한강유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왜와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해적과 같은 왜구가 주로 해변에 위치한 신라의 도움지 경주 부근에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침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왜구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왜로 표현되는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듯하다.

《일본서기》에서는 신공황후 섭정 46년부터 백제 관련기록과 신라정벌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¹⁰⁾ 백제 관련기록은 백제가 전남지역을 경영하는 역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임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신라정벌 기사도 잘 검토해 보면 그 전쟁을 수행하였던 인물들은 백제인이었다. 즉 백제인 木(羅)斤資라는 장군인데, 그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할 때 문주왕을 옹호하였던 木滿致의 부친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목(라)근자는 그 후 왜군이 대가야를 침입하였을 때 왜군을 격퇴함으로써 대가야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을

10) 百濟 관련기사는 《日本書紀》권 9, 神功皇后 46년·47년·50년·51년·52년에, 신라 관련기사는 神功皇后 49년·62년에 있다.

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이 때 왜군의 대가야 공격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른바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제가 아신왕 6년(397)에 왜와 관계를 맺고, 아신왕 11년에는 사신을 왜국에 보내 大珠를 구했으며,¹¹⁾ 다음해는 백제에 온 왜국사신을 백제왕이 후하게 대접하였다.¹²⁾ 백제가 이처럼 왜에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펼치게 된 것은 고구려의 남침 때문이었다. 이 때 고구려는 영토를 널리 확장한 광개토대왕 때로서, 그 위업을 기리는 비가 남아 있어 쉽게 치적을 알 수 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백제와의 전쟁기록이다. 영락 6년(396, 아신왕 5)에 광개토왕 스스로가 거느린 고구려군이 한강을 건너 백제의 국도를 꺾박하였으며, 백제왕은 이에 항복하여 복속을 맹세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³⁾ 아신왕이 태자인 진지를 왜에 보내어 관계를 긴밀히 하려고 하였던 것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취해진 외교정책의 일환이었다.¹⁴⁾ 아신왕 8년(399)에 이르러 백제가 서약을 위반하고 왜국과 통교하므로 광개토왕은 이에 보복하려 했다. 마침 고구려는 왜적의 침범에 대한 신라의 구원 요청이 있었으므로 행동을 개시하여 신라·가야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400).¹⁵⁾ 한편 신라의 실성왕은 이러한 전쟁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는 방편으로 왜국과 통교하기로 하고 내물왕의 아들인 末斯欣을 볼모로 왜에 보내었다.¹⁶⁾ 〈광개토왕릉비문〉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아무럼 왜의 군사력이 남한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정도였던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시기의 왜는 북구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⁷⁾

11)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11년 5월.

12)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12년 정월.

13) 盧泰敦, 〈廣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1992), 18쪽.

14) 李基東, 앞의 글, 252쪽.

15) 盧泰敦, 앞의 글, 18~19쪽.

16)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실성니사금 원년 3월.

17) 千寬宇, 〈韓國史의 潮流〉(《新東亞》 1973-1).

水野祐, 《日本古代の國家形成》(1967), 157~158쪽.

金錫亨, 앞의 책, 345~346쪽.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株式會社, 1973), 336~337쪽.

백제에서 아신왕이 죽자 조정에서는 내란이 일어났다. 왕의 가운데 아우인訓解가 섭정을 하게 되니 왕위를 노린 막내아우 磔禮가 혼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한편 태자로서 왜에 가 있던 전지는 이 때에 왜인 100명의 호위를 받고 解忠의 도움으로 설례를 타도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¹⁸⁾ 전지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백제와 왜의 우호적 관계는 계속되었다. 전지왕대에는 왜국에서 夜明珠를 보내왔고,¹⁹⁾ 백제에서는 白綿 10필을 보내는 등²⁰⁾ 왜국과의 우호관계가 더욱 견고하였다. 한편 신라의 경우, 눌지왕 2년(418)에 왜에서 머무르던 왕자 미사흔이 귀국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7) 드디어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백제·신라 그리고 왜에 이르기까지 모두 긴장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5세기 중엽 이후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전쟁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개로왕 18년(472) 고구려의 남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그 동안의 경위를 “원한을 맺고 禍가 이어짐이 30여 년”이라고 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²¹⁾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나제동맹까지 체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문주왕 원년(475) 백제의 도움 한성이 함락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국도를 웅진으로 옮기고 말았다. 천도 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부흥을 위해 힘썼던 무령왕에 대해 《일본서기》에는 일본에서 탄생한 것으로 전하는 설화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²²⁾

백제사에서 6세기 전반기는 가야지방에 대한 영유문제를 중심으로 신라 및 왜와의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갖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미묘한 관계는 《삼국사기》보다 《일본서기》에 그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전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가 가야지방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木滿致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듯하다. 목만치는 과거에 가야지방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결국 백제의 강력한 세력으로 진출하게 된 인물이었다. 그가 왜에 건너가 왜의 중요한 인물로 등용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목만치의 이주에 이

李基東, 앞의 글, 274~281쪽.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一志社, 1990).

18)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전지왕 원년.

19)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전지왕 5년.

20)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전지왕 14년 하.

21)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18년.

22)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5년 4월.

어 5세기 말경에는 대가야의 대족들이 왜에 건너가 河內지방에 정착하여 상당한 집단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6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낙동강 동쪽 연안의 가야지방이 신라의 세력하에 들게 되고 진흥왕 23년(562)에는 대가야가 정복됨으로써 가야지역은 완전히 신라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백제는 이 시기에 이르러 남천 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다시 강국이 된」 시대였다.²³⁾ 그 결과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수세에만 처해 있던 백제가 다시 대등한 관계로까지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천도 후의 무질서했던 국가기구와 제도는 이 기간 동안에 안정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특히 사비천도 이후로 크게 진전되었다.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관료적 조직화가 완료되었으며 왕권국가 중심의 체제가 완비되었던 것이다.²⁴⁾

6세기 전반 백제사의 또 하나의 특색은 왜와의 외교적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백제로부터 五經博士 등의 전문지식인을 왜국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왜에 파견되었던 박사들 중에는 오경박사 이외에 易博士·醫博士·曆博士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제가 이와 같이 왜에 많은 박사를 파견한 것은 왜의 요청에 기인한 바 크다. 높은 학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은 왜국의 국가제도 정비와 사회의 문명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었다. 왜국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백제가 준 대가로서 백제는 왜에 군사적 지원을 바랐던 흔적이 《일본서기》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라의 대가야 공세가 적극화된 법흥왕 17년(530) 이후로 이러한 백제의 태도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신라는 진흥왕 12년에 백제와 공동작전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며 동 14년에는 백제가 병합하려는 한강 하류지역을 쳐서 차지해 버렸다. 이는 명백히 동맹국 백제에 대한 배신이었다. 이 배신에 보복하기 위해 성왕은 신라의 狗川에까지 쳐들어 갔으나 불행하게도 신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진흥왕의 백제에 대한 배신행위는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결국 이 시기 이후에 신라는 고구려·백제와의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 없었다. 신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에 사신을 자주 파견하여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한편 백제로서는 신라와 동맹

23) 《梁書》권 54, 列傳 48, 百濟, 普通 2년.

24)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214~292쪽.

자적인 관계에서 마침내 적대국의 관계로 돌변하게 되자 기존의 외교노선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백제의 대중관계는 대체적으로 남조의 관계로 한정되었던 것이나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북조의 북제나 북주와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위덕왕대 외교노선의 급선회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였음을 알게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백제는 왜와의 관계를 추진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들이 《삼국사기》에는 남아 있지 않다.

한편 한반도에서 이러한 정세 변동이 초래된 시기에 이어 중국에서는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였다(589). 그 후 수가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정세 변동 속에서 백제는 수와도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또한 고구려와도 화합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에 왜에서는 推古天皇이 즉위하고 모든 권한은 聖德太子가 장악하게 되었다. 성덕태자는 집권 초기에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후 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수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거리를 두는 외교를 펴나갔다. 이러한 왜의 태도 변화는 백제를 자극하였다. 《일본서기》 추고기 및 《隋書》倭國傳에 의하면, 백제는 수에서 왜국으로 귀국하던 왜의 사신을 사로잡아 그가 가지고 있던 수의 국서를 빼앗는 사건을 일으켰다.²⁵⁾ 이는 바로 백제가 왜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다. 왜의 수나라 접근과 백제의 외교문서 탈취로 인한 양국 사이의 긴장된 관계는 무왕 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회복되어 갔다. 즉 당이 신라와 접근한 데 자극되어 백제는 왜와의 화친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백제가 왜에 접근을 시도하는 방편으로서 나온 것이 豐璋의 파견이었다. 풍장은 《일본서기》舒明紀에 나오고 또한 齊明紀에도 나오는데 이들은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으로서 전자는 무왕의 아들이고, 후자는 의자왕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²⁶⁾ 풍장을 왜에 파견할 때 백제에서는 태자의 책봉을 둘러싸고 원자인 의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왕자 풍장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왜에서는 舒明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실권을 장악한 蘇我氏세력이 서명의 즉위를 반대한 친백제세력

25)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倭國.

《日本書紀》권 22, 推古天皇 15년.

26) 盧重國, 〈7世紀 百濟와 倭와의 關係〉(《國史館論叢》52, 1994), 165쪽.

인 境部臣세력을 제거해 버렸다. 경부신세력이 제거당한 사건은 왜국내에 있던 친백제세력으로서의 적지 않은 타격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복잡한 백제와 왜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풍장을 왜국에 파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내에서는 지배세력들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조정되었으며 왜의 조정내에 다시 친백제세력을 재건할 수 있었다.²⁷⁾ 그 결과 백제와 왜는 무왕 말정에 이르기까지는 우호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백제에서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백제와 왜와의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의자왕은 즉위 후 무왕 말기부터 시작된 지배세력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위정변을 일으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²⁸⁾ 이러한 과정에서 의자왕의 조카 翹岐를 비롯하여 좌평 岐味 등 수십 명의 귀족들을 대거 추방하였다. 이들은 바로 무왕이 말기에 이르러 환락에 빠지자 왕의 측근 세력으로 의자의 즉위를 반대했던 무리들로 생각된다. 그런데 백제에서 추방되었던 교기는 당시 왜의 실권자였던 蘇我蝦夷大臣이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대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아마도 왜에 머무르면서 의자왕의 반대세력 추방을 거부했던 백제인들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가 교기에 대하여 취한 태도는 백제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자왕은 대좌평 沙宅智積을 왜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아무리 적극적이었다 하더라도 왜가 응하지 않으므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귀국한 사택지적은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왜와의 공식적인 교역관계를 줄이는 등 긴장관계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왜에서는 지배세력이 바뀌어 이제까지 실권을 장악 하였던 소아씨세력이 中大兄과 中臣兼足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해 제거되어 孝德이 즉위하고 大化改新을 단행하였다(646). 효덕천황대에 실권을 장악했던 중대형의 백제에 대한 정책에는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때에 동아시아 정세는 신라와 당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자 백제나 왜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의자왕은 왕자 夫餘豐를 왜에 파견하였다. 《삼국사기》백제본기 의자왕 13년(653)조에 왜국과

27) 盧重國, 위의 글, 162~167쪽.

28) 盧重國, 위의 글, 168~176쪽.

통호하였다²⁹⁾고 하는데, 이것은 비유왕 2년(428)에 왜국에서 사신이 왔다는 기사가 있는 후 220여 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백제의 왜국과의 관계기사이다.

결국 의자왕은 이제까지 소원했던 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 한반도에서 야기되고 있던 신라와 당의 연합세력에 대항하여 백제·왜·고구려의 또 하나의 연합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의자왕은 말기에 정사에 뜻이 없었다. 마침내 백제는 의자왕 20년(660)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백제의 멸망기에도 왜의 백제에 대한 우호적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될 때 왜에서는 대군을 파견하여 백제군을 지원하고자 한 것에서 알 수 있다.³⁰⁾

백제와 왜의 관계는 부흥운동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백제가 멸망하자 각처에서는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일어섰다. 豆尸原岳에서 일어난 좌평 正武의 부흥군, 任存城을 근거로 한 은술 福信과 승려 道琛의 부흥군, 久麻怒利城을 중심한 달솔 餘自進의 부흥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역시 임존성을 근거지로 했던 黑齒常之·沙吒相如의 부흥군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흥군 가운데서 가장 핵심을 이루었던 임존성을 근거로 한 복신·도침군은 좌평 貴智를 왜국에 파견하여 군사원조를 구하는 동시에 부여풍을 귀환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³¹⁾ 백제의 멸망이라는 급격한 상황 변동에서 백제부흥군으로부터의 군사원조 요청은 왜국내에서 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는 당시 정치적 실권자였던 중대형세력이 국내의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앞으로 왜에 끼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백제의 부흥군을 지원하려고 왜국에 있던 백제인 특히 백제왕자 夫餘勇의 활약이 컸었다. 백제의 부흥군이 그들 자체의 분열에 의해 무너져 버리자 백제와 왜국의 공식적인 관계는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백제인들의 일본으로의 진출은 계속되었다.

29) 《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13년 8월.

30) 《日本書紀》 권 27, 天智天皇 원년 8월.

31) 《日本書紀》 권 26, 齊明天皇 6년조에 의하면 福信이 왕자 夫餘豐의 귀환을 위해 사신을 처음 보낸 것은 660년 10월이었고, 661년 4월에 다시 요청하였다.

3) 대왜관계의 성격

백제는 근초고왕대부터 왜와 접촉을 시작하였다. 그 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더 나아가서 부흥운동기까지 그 관계는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백제의 대왜관계의 성격은 정치적·문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된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의 외교관계 자료에 등장하는 「結好」「通好」「質[불모]」 등의 단어에서 대체적으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모」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대개 人質이란 약소국에서 강국에 대해 불모로서 파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개념은 특히 중국의 고대 戰國時代에 유행했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전국시대의 「불모」의 개념과 다른 성격인 외교적인 것도 일률적으로 인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³²⁾ 특히 전지의 경우는 인질외교가 아니라 당시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백제가 주도적으로 취한 군사외교였다.³³⁾ 뿐만 아니라 부여풍을 인질로 왜국에 파견한 일이 있는데 이 또한 백제가 자주적으로 왜국의 대외정책을 백제의 사정에 맞추어 진행시키기 위해 파견한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설이다.³⁴⁾ 그러므로 백제와 왜의 정치적 관계는 시기에 따라 약간 소원한 때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백제인들의 문화전수 활동으로 일본 고대문화의 뿌리를 이루게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찍이 백제인들은 왜에 건너가게 되었고 이들은 학문과 불교, 그리고 각종 기술 등을 전수함으로써 왜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왜가 고대국가를 이룩하는 데 백제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적 요소들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왜는 고대국가 건설 이후에도 문화적 욕구를 주로 백제인들로부터 채워나갔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백제의 옛왕족과 귀족이 대거 일본에 건너가 거주케 됨으로써 문화적 전

32) 申采浩, 〈讀史新論〉(《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上, 1972), 497~498쪽.

33) 李基白, 《韓國古代史論》(探求堂, 1975), 74쪽.

34) 山尾幸久, 《日本國家の形成》(岩波新書, 1977), 137쪽.

수관계는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백제와 왜의 관계는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화전수자적인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兪元載〉